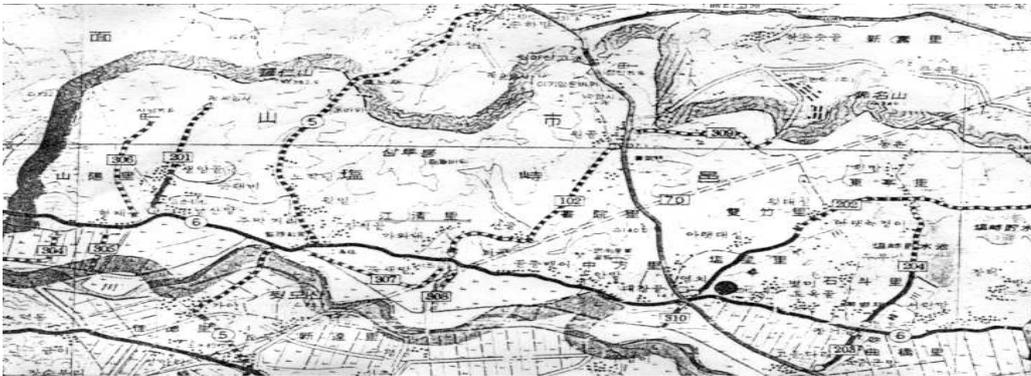


## 강청리·江淸里

<구연자 : 염치읍 강청리 신현정씨 (74세)>

강청리는 염치읍의 한 마을로 강척골, 웃말, 아랫말, 새터말, 속새말이라는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본래 아산군 삼서면의 지역으로서 돌이 많이 있어서 뒤에 있는 영인산의 물이 이곳에 이르면 지하로 흘러 들어 내가 말라 있으므로 간척동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강척골, 강청리라 하였는데 옛날 읍지를 정하고자 여기저기를 알아보던 터에 읍지를 정할때는 버선밭로 다녀도 물이 묻지 않는 곳을 선택하였다고 하는데, 강척골이 그런면에서 가장 적당하여 관터와 행재터, 곡창터를 이곳 닛째봉 밑에 정했으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끝내는 영인산 넘어 아산에 읍지를 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은 정말 읍지를 정할만큼 산세가 수려하다. 강청리는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리, 하리를 병합하여 강청리라 하여 아산군 염치면에 편입되었다. 호구수는 68호이며, 마을 주민의 66%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 싸여 있다.

<강청리 위치도>



⊗ 강척골(간척동) 마을(강청리)

강청리는 강척골, 웃말, 아랫말, 새터말, 속새말, 주막거리로 나뉘며 강척골 마을은 돌이 많아 뒤에 있는 영인산의 물이 이곳에 이르면 지하로 흘러내가 늘 말라 있으므로 간척동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강척골 또는 강청리가 되었으며, 지금도 마을 냇가에는 물이 조금씩 밖에 흐르고 있지 않다.

웃말 마을은 강척골 위쪽에 있는 마을이며, 아랫말 마을은 강척골 아래에 있는 마을이며, 새터말은 감투봉 아래에 있는 마을로 새로 생겼다하여 새로 생긴 마을이며, 속새말 마을은 아래말 동쪽 고개 너머, 곧 서원리의 기와내 옆에 있는 작은 마을로 "와우형"의 명당이 있다고 하며, 주막거리는 아랫말 아래 큰 길가에 있는 마을로 주막이 있었다하여 유래 되었다.

< 조사당시 강척골 마을 관련 사진 >



### 1) 위치

강척골 마을은 위도 36- 49- 20, 경도 126- 56- 30인 곳에 위치하며 온양과 인주, 신창을 잇는 중간지점이며 도로변에 있는 마을이다. 39번 도로를 타다 보면 영티읍의 고개를 못 미쳐 구도로가 나 있으며, 1km 정도 더 가면 도로 좌측에 영인산을 등지고 있는 이 마을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도로 우측에는 곡교천이 흐르고 있다.

### 2) 현황

강척골 마을의 인구는 남자 130명, 여자 125명으로 총 255명이 살고 있으며, 호구수는 68호에 이르며 주민들의 6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 인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	여
강척골 마을	255명	130명	125명

#### -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축산업	서비스업
강척골 마을	100%	60%	2%	38%

강척리 마을 전체 논 면적은 45ha, 밭이 27.1ha이며,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양수기, 병충해 방제기, 이앙기, 관리기, 예취기, 절단기, 건조기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로는 노인회관을 겸한 마을회관 1개소가 있고 앰프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마을회관	기타문화시설
강척골 마을	1개소	1개소	-

-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계	김 씨	이 씨	박 씨	최 씨	전 씨	기 타
강척골마을	68호	13호	11호	6호	4호	3호	31호

강척골 마을은 김씨 19%, 이씨 17%, 박씨 9%, 최씨 6%, 전씨 4%, 기타성씨 45%로 이루어져 있다. 연령층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으며, 다른 마을의 노령화에 비해 이곳은 젊은 사람들이 많다.

- 성씨별 분포 현황

- 최고령자

마을의 최고령자는 작년만 해도 박 봉예 할머니 였는데 얼마전 105세의 나이로 별세 하였으며, 현재로서는 김 봉용 할아버지로 올해 92세이다.

3) 자연경관

강척골 마을 입구에서 보았을 때 뒤에는 영인산을 등지고 있으며 마을 앞으로는 곡교천이 흐르고 있어 배산임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마을이며, 한마을이기는 하나 여러곳에 몇가구씩 모여 살아가고 있다. 마을을 처음 들어서면 좌측으로 냇가 있고, 마을을 등지고 있는 산들이 너무나도 수려하여 한폭의 산수화 같은 느낌을 받는다. 마을에는 다양한 봉우리들이 많은데 이 모든 산들은 영인산을 주봉으로 하여 이어져 있다.

4) 마을 변천과정

강척골 마을 변천과정은 아산군 삼서면의 지역으로서 돌이 많이 있어서 뒤에 있는 영인산의 물이 이곳에 이르면 지하로 흘러 냇가 늘 말라 있으므로 간천동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강척골 또는 강척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리, 하리를 병합하여 강척리라 하여 아산군 염티읍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강척골 마을의 형성 연대는 서기 1450년경 약 550여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합천 이씨가 처음 이 마을에 들어와 터를 이루며 살았는데 현재 합천이씨가 18대째 살고 있다. 그후 전주 이씨 광평대군파가 들어와 살기 시작하여 지금은 합천 이씨 보다 더 많이 살고 있으며 합천 이씨는 4가구만이 살고 있다.

6) 지 명

- 간척동 (간천동) : 돌이 많이 있어 영인산의 물이 이곳에 이르면 속으로 흘러서 냇가 늘 말라 있음.
- 웃말 : 강척골 위쪽에 있는 마을.
- 아랫말 : 강척골 아래에 있는 마을.
- 새터말 : 감투봉 아래쪽에 있는 마을로 새로 생긴 마을임.
- 주막거리 : 아래말 아래 큰 길가에 있는 마을로 주막이 있음.
- 속새말 : 아래말 동쪽 고개 너머, 곧 서원리의 기와내 옆에 있는 작은 마을로 "와우형"의 명당이 있다 함.
- 동림산 : 강척리와 서원리 어름에 있는 산으로 영인산 남쪽 줄기가 되며, 거북모양의 큰 바위가 있음.
- 닷지봉 : 상투봉 위쪽에 있는 봉우리.

- 비아산 : 주막거리 뒤에 있는 산.
- 상투봉 : 동림산의 상봉으로 모양이 상투처럼 생겼으며, 흔들바위가 있음.
- 노석당 : 웃말 뒤에 있는 못으로 영인산에서 흐르는 물이 한 길이나 되는 폭포를 이루고 그 밑에 못이 되었는데 놀이터로 유명함.
- 도장골 : 선바위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매우 아늑함.
- 선바위 : 강척골 서쪽 산에 있는 바위로 산줄기에 바위가 길게 서 있음.
- 병풍바위 : 아래말 위쪽에 있는 바위로 모양이 병풍과 같음.
- 진청암 : 주막거리 앞 길가에 있는 바위로 높이 한 길 반이나 되고 넓이 너저 가량되는데 그 면에 "진청암"석자를 새기었음.
- 흔들바위 : 상투봉에 있는 바위로 바위가 집채만한 것이 바위 위에 얹혀 있는데 한 사람이 흔들나 수백명이 흔들나 한결같이 흔들림.
- 흐느재 : 강척골에서 영인면 아산리로 넘어가는 큰 고개로 길이 4km 이상되며 매우 후미짐.

## 7) 전 설

### 상투봉 전설

옛날에 엮티면 강청리라는 마을에 죽대 없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선비면서도 글은 안 읽고 매일 술만 먹고, 하는 짓이 남의 집 닭이나 잡아 먹고, 남의 밭에 있는 곡식을 뽑는 등 그야말로 선비로서는 못할 짓만 하고 돌아다녔다. 이러다보니 과거 시험만 보면 낙방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마을은 정말 이 못된 선비 한 사람 때문에 엉망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생각다 못해 그를 동네에서 쫓아버리기로 결의했다. 쫓아내는 방법은 그와 상대를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그와 상대를 안하면 그가 저절로 다른 곳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그는 더욱 나쁜짓만 하고 다녔다. 이번에는 닭만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밤에 남의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를 몽둥이로 잡아 죽이는 등 갈수록 태산이었다. 그는 장날이면 항상 장에 갔다. 장에 볼일이 있어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장꾼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질을 하고 술집에 가서 술값도 안내고 주인과 싸우는 짓을 일삼았다. 그날도 그는 장에 나갔다. 항상 장에만 가면 늘 하던 짓대로 지나가는 사람과 실갱이를 하다 술에 취해 집으로 향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양반의 걸음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다. 길 전체를 왔다갔다 금방이라도 고꾸라질 것 같은 걸음이었다. 그의 집에 가기 위해서는 강도 건너야 되고 산도 넘어야 하는 10리 길을 가야 했다. 그의 걸음걸이로 봐서는 다음날 도착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강을 건널 때 강에 빠질 듯이 비틀거렸지만 용케도 강을 건넜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는 산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 산에는 큰 고개가 있었으며 그는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다. 산에서는 밤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려왔다. 그러나 이 선비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비틀거리며 올라가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이 울음소리는 계속되었으며 그는 산중턱쯤에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호랑이 한 마리가 그의 앞에서 그를 노려보고 서 있었다. 그는 정신이 번쩍 들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호랑이는 두 눈을 번쩍이며 그의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다가오던 호랑이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천둥벽력 같은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선비는 온데간데 없고, 큰 바위만 우뚝 서 있었다. 선비가 바위로 변한 것이었다. 호랑이는 산신령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바위는 이상하게도 상투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 선비의 상투가 그대로 바위로 변한 것이라 한다. 그리고 이 바위는 상투처럼 흔들면 흔들린다고 한다.

### 효자 이태연 선생의 효행에 관한 일화

효자 이태연은 어려서부터 두뇌가 명석하고 글을 좋아 했으며,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의 동네에서 효자라고 불리어 졌다. 어느날, 그만 그의 부친께서 자리에 앉아 누우셨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친의 간호에 온갖 힘을 기울였다. 졸다는 약은 모두 써 보았으며, 잡숫고 싶다는

것은 모두 해드렸다. 그런데 그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부친의 병은 안타깝게도 더 악화만 되어 갔다. 어느날 그의 부친께서는 눈이 펄펄 내리는 아주 추운 겨울에 딸기를 먹고 싶다고 했다. 그는 그만 눈앞이 깜깜하였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 어디서 딸기를 구할 수 있을까? 그는 밤낮으로 신령님께 기도를 드렸다. 어느날 그는 부친의 간호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스님이 시주 좀 해달라고 왔다. 그의 집은 쪼들리는 살림에 약값으로 하여 쓸 곳은 많고 넉넉지는 못했지만, 성의를 다해 시주를 했다. 그 스님은 태연의 얼굴빛을 보고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태연은 사실대로 부친께서 지금 병석에 누워 계신데 이 추운 겨울에 딸기를 잡숫고 싶다고 해서 걱정이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은 "그대의 효성이 너무 지극해서 내가 감동했도다."하면서 영인산을 가보라고 했다. 태연은 너무 기뻐서 그날 바로 영인산으로 갔다. 영인산은 너무 험하고 눈이 많아서 걸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며칠을 헤메다가 너무 지쳐서 그만 눈위에 쓰러졌다. 그는 의식을 잃고 있는데 꿈속에서 지난번 낮에 온 스님이 나타나서 "태연아, 빨리 일어 나가라, 너의 부친이 위독하다. 어서 딸기를 갖다 드려라"하는 것이었다. 태연은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나 일어날려고 하니 몸이 천근 만근되는 것처럼 땅에서 떼어지지 않았다. 억지로 일어 내려다가 그만 뒹굴고 말았다. 뒹굴 뒹굴 굴러 내려가다가 멈추어진 곳은 바위 옆 따스한 양지쪽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옆드려진 채 바위 밑을 보니 딸기가 빨갭게 익어 있었다. 태연은 뭘 듯이 기뻐했다. 그는 딸기를 따서 정결하게 그의 부친께 갖다 드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부친께서는 그 딸기를 잡수시고 병의 차도가 좋아졌다. 태연은 그 스님이 신령님이라 믿고 감사드렸다. 동네 사람들도 태연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다. 그는 효로써 극진히 봉양하였다. 그리고 책읽기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그의 부친은 그의 간호속에 편안히 눈을 감으셨다. 태연은 살아서 효도를 제대로 못했으면서 슬프게 울었다. 그는 그의 부친 산소 밑에 움막을 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년간 계속하여 산소를 정성껏 돌보았다.

####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강척골 마을에서는 옛날 당제와 산신제를 지냈으나 6. 25이후 없어지게 되어 한동안 지내오지 않다가 마을에 불상사가 생기자 근래 들어 지신제라하여 이월 초하루날 회관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마을의 평안을 기리는 제를 올리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로는 애경사시 서로 돕기 위한 대동계가 운영되어 있어 상부상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 9)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

강척골 마을에서 소개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효행이 지극했던 이태연을 들 수 있다. 이분은 현재 마을에 살고 있는 이규만씨의 5대조 할아버지로 비록 널리 알려진 사람은 아니지만, 강척골 마을에서는 자랑스런 효자이자 인물이 아닐수 없다.

이태연은 세종이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의 15대손으로 강척골에서 이 의호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자는 성진이요. 호는 강옹이다. 부모를 섬기고 효도를 다했던 이태연은 나라로부터 효자의 교지가 내려져 그를 기리는 정려가 강척리에 세워졌고, 벼슬도 높아져 보람찬 생애로 일관하였다. 지금도 그의 정려가 보존되어 지고 있다.

#### 10) 종교단체

강척리 마을에는 있는 종교단체로는 그리 크지 않은 강산 장로교회가 있는데 신도수는 22명 정도에 불과하다. 옛날에는 마을에 동림사라는 절이 동림산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터만 남아 있다. 그리고, 종교단체라기는 어렵지만, 노석암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었는데 무속인이 그곳에서 살았으나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터만 남아 있다고 한다.

#### 11) 공장현황

강척골 마을에는 다른 마을과는 달리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금속포장용기

제품을 생산하는 곳과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앞으로 자동차 부품 생산 및 제조 업체로 2개소가 현재 착공중에 있다.

동원제관- 강청 산 19- 3, 허가일 93.1.16, 면적 2,932, 종업원수 31, 금속포장 용기제작

동양MK공업(주)- 강청 산9, 허가일 95.3.17, 면적 10,000, 종업원수 17, 화학제품

계영정밀- 강청 산 14, 허가일 97.5.8, 면적 4,958, 자동차부품제조업

## 12) 마을의 특성

마을의 주변은 온통 산으로 둘러 싸여 있고, 영인산을 등지고 있는데 절경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는 마을이다. 영인산을 주봉으로하여 마을 안쪽으로 여러개의 봉우리가 어우러져 있으며, 마을에 지신제를 지내면서 급진적 산업화 발달에 따른 각 마을 특성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에서 마을 전통 계승과 마을 주민간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고 있으며, 강척골에 대해서 만큼은 아산시에 있는 다른 면에 비해 모든 점에서 제일 가는 마을이라 자부심이 대단했으며, 농촌을 지켜가는 전형적인 선비 마을이라 표현을 했다.